

시론

50년 만의 동행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으로



강동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前 조선대 총장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기 때문이다... 중략(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인간이 서로에게 방문객이 돼 환대받는 사회이면 좋겠다. 지난 50년 전 고교를 졸업한 필자의 동창생은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현장으로 나아갔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는 "인생이란 B(탄생)와 D(죽음) 사이에 있는 C(선택)이다"는 말을 남겼다. 생각해 보면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좌고우면, 시행착오, 실수, 집착 등에 의한 번민과 갈등으로 쓴맛 매운맛의 좌절과 절망의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

얼마 전 필자는 1974년 고교 졸업 50주년을 맞이해 1년여 간의 준비 끝에 베트남 다낭시를 여행했다. 고교 시절 수학여행의 실례임을 안고 다녀온 이번 여행에는 가족 197명이 참여해 8개의 조로 나눠 3대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실 졸업 50년 만의 동행 속에 낯설도 있었지만 이름을 다시 불러보고 이야기를 나누

보니 반가움 그 자체였다. 그리고 3박5일간의 일정은 "그 동안 고생 많았다. 잘 살아왔구나"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스토리를 경청하는 시간이었다.

여행이란 계획된 일정 중에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감동적 순간들이 있다.

격동의 1980-90년대를 겪으면서 21C를 맞이했던 우리 세대는 아날로그를 벗어나 디지털 정보사회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주문을 외우면서 성취 중심의 사회에서 부딪치면서 살아왔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고 부서지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도전했던 열정적 삶의 스토리를 간직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그 스토리는 미완성이지만 과거를 딛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사랑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한 배려의 휴머니즘이었다.

인간이 쫓는 부귀영화는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다. 부귀영화 뒤에 남은 뒷모습이, 난항처럼 백 리를 가고 목양이 천 리를 가고 덕의 향기가 만 리를 간다고 하니 인간이란 무릇 덕의 향기만이 그윽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배우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소설을 썼던 켄 키즈(1935-2001)의 말이 생각난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한 인간이 남긴 덕의 씨앗이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인생이란 우주 속 여행이다.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쿵저러쿵 우물쭈물하다가 가는 것이 아닌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1890-1960)의 "인생 그 자체, 인생의 현상, 인생이 가져다준 선물은 숨이 막히도록 진지하다"는 말에 위로를 받는다.

필자의 중학교 1학년 시절인 1968년 12월 크리스마스이브에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된다. 미국 NASA에서 발사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라 불리었던 아폴로 8호가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 궤도를 진입하면서 해돋이가 아닌 지구돌이래 명명된 외로운 푸른 구슬의 지구의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이다. 당시 시인인 아치볼드 맥크리시(1892-1982)는 뉴욕타임스에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 있는 작고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여전히 우리는 모두 우주를 달리고 있는 지구의 승객으로 인생은 짧고 허망하지만 우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살피야 하지 않을까?

이제 졸업 50주년 동행의 꽃가마를 매고 탐험했던 친구들 강수, 봉현, 중문, 성현, 천석, 용덕, 세균, 한규, 주, 형근, 기근, 상용, 경석, 한승, 정준, 그리고 미국에서 온 용교, 강서, 러시아에서 온 석방, 중국에서 온 종일 등의 귀한 이름을 마음에 새겨 본다.

또한 이러한 동행에서 얻은 영감과 그간 친구들이 쌓은 경험과 경험을 활용해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공동체적 가치인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자치칼럼

주민자치와 시민권력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광주광역시도 주인은 누구인가? 시장인가? 시민이 주인이다. 마을의 주인은 누구인가? 마을 주민이다. 이 당연하고도 뻔한 진리가 왜 현실에서는 체감되지 못하는가?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 예컨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인 바,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저버릴 때 국민은 포로써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민중)의 권력이라는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헌법 제2조 2항이다. 민중권력은 바로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어원적으로 그리스어 '민중(demos)'과 '지배(kratia)'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즉 민중권력이라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 경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 출현했다. 왕이

나 귀족들이 통치하던 것을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너뜨리고, 모두가 참여해서 도시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직접했다. 물론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참여해 이뤄졌다.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다. 모두가 모이기 힘들니까 1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50명씩 추첨으로 뽑아 500명을 구성해서 공동 의사결정을 했다. 500명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했다. 예컨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법인의 형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정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성에 한계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최대한 근접해야 한다. 마을민주주의 구현체가 바로 주민자치회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옆에 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지금, 직접민주주의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하지만 합의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정책수용도가 높다. 또한 질이 높은 정책이 결정되고, 시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로 등장해 효능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원래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 모델 중에서 정부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중 가장 이상적인 모형으로 주민조직형을 제시한 바, 여기서는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자치회 산하에 사무기구를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협력형을 수정, 지금과 같

이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를 병렬구조로 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의하도록 했다.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 역할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해외 주민자치 우수 사례로 흔히 스위스 클라루스주 란츠게마인데를 꼽는다.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의 최고결정기구인 주민총회 성격을 갖는 란츠게마인데에 참여해서 주의 법을 제정·개정하고, 1년 예산을 직접 결정한다고 한다. 안건마다 주민이 의견을 달리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석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모두 투명하게 일반에 공개한다고 한다.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에 광장에 모여 진행되는 주민총회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의의 직접민주주의의 구현 유형을 두고 있다. 주민투표(제18조),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 청구(제19조), 주민의 감사청구(제21조), 주민소송(제22조), 주민소환(제25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이 현실에서 구현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위 위에서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보호받지 못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현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 정신에서 후퇴 역행하는 조치들이 있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시민권력이 행사돼야 한다.

독자투고

도박, 단순 게임이 아닌 명백한 범죄



지구대에서는 종종 도박의심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하면 도박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고, 찾더라도 단순히 허밥값 내기인데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인 이유는 무엇일까?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운에 따라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강한 중독성을 유발한다. 큰 노력 없이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돈을 따면 쾌감을 잊지 못해 계속 빠진다. 최근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문화로 형성될 위험이 높고, 접근성이 용이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 도박은 재미 삼아 했던 행동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잃게 되는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절도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도박 중독은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된다. 한 번 중독되면 자기조절 능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개인 의지로만 고칠 수 없다. 상습적인 습관과 뇌의 충동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일종의 장애 현상이며, 치료를 위해선 가족·이웃 등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도박을 단순한 게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갖고 주변에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중독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수연·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층간소음 피해 빌라·오피스텔 보상 근거 마련돼야

층간소음이라 하면 실내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 공구 사용 중 나는 소리, 가구가 끌리거나 찍히는 소리,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소리 등을 망라한다. 일상 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하는 것으로 예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광주에서 최근 3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만 연평균 800건 이상으로 2021년 915건, 2022년 917건, 2023년 871건으로 나타났다. 장소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비공동주택(빌라·오피스텔 등)으로 별다른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공동주택이 전체의 70~80%로 더욱 취약한 실정이라고 한다. 가동, 들보 등 골조를 넣지 않고 벽이나 마루로 구성된 벽식구조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경우를 위주로 이웃 사이 불미스러운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윗집의 인더폰과 벽을 훼손하고 흥기를 들고 찾아 위협하는 등의 난동에,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흔하다. 층동·계획적인 살인까지 벌어진다.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1분간 등가 소음도(평균) 39dB, 최고소음도 57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34dB·52dB인 소음 기준을 예상로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30기 이상의 신축 아파트 시공사에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동 때까지 보완 의무화 ▲중간 측정 ▲기준 초과로 인한 입주 지연 시 배상 등을 부여하는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층 아파트와 비공동주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이다. 광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며, 해가 갈수록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거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규제에 차이가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시공사에 보다 분명한 책임을 부여해 소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 꼼꼼한 공사를 통한 원천 차단은 물론 피해 발생 시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

이웃에 대한 배려의 문화도 성숙돼야 한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에 따른 상호 존중이 기본이다. 더는 손 쓸 방법이 없어 이사를 가야 하는 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한계 상황에 다른 모습이다.

'블랙푸드' 김주산지 전남 클러스터 속도 기대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역대 최고 실적이다. 한국산 농·수산물 수출품목 중 1위다. 전남은 제1의 김 생산지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김 산업과 세계화를 위해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펼쳐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김 산업 진흥구역에 장흥군·진도군이 지정됐다. 김 생산 및 가공, 수출 분야의 성장 여건이 충분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흥과 진도는 김 양식 가능 면적 1천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개소 이상,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다. 전남도는 장흥·진도에 100억원(국비 50%)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은 지난해 제1차 공모에 해남군과 신안군이 선정된 바 있다. 이 곳은 유기 인증 확대, 양식시설 현대화, 기자재 보급, 마른김 가공업체 위생·안전시설 확충 등의 기반을 갖췄다.

김이다. 김치 넘볼 수 없는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도 높이는 게 과제다. 전남도는 맞춤형 국제 인증 등으로 김 세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로로 삼아야 한다. 수익성 높은 김 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서구인들은 김을 먹을 수 없는 '블랙 페이퍼(Black Paper-검은 종이)'라고 불렀다. 식재료로 익숙한 한국, 일본과는 달리 해조류를 잘 섭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스낵'처럼 소비된다. 갈로리가 낮은 반면 영양 면에서 뛰어나서다. 건강식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청정 앞바다에서 생산한다. 어업인들은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즐거운 비명이다. 전남이 주산지인 케이(K)-푸드다. 선풍적인 인기를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 건강한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침물어는 詩

역전 국밥

김귀례



새벽바람을 이고  
남광주역에서 하차하는 푸성귀들을 위해  
언 손 녹여 주는 골목이 있지  
순대국밥처럼 위로받는  
노점 좌판과 같은 사람들  
가로등 없는 고살길에서 만난 찻반 같은 이들이  
내장이 되고 순대가 되고 살코기 몇 점 되어서  
마주 앉은 자리  
섞어국밥 같은 사람들이 있지  
꽃이 줄 모르면서 들꽃이 되는 사람들  
혼자서 밥길 걷는 이에게 향기의 꽃등 밝혀 놓고  
두박한 노래 불러주는 이들 있지.  
(시집 '꽃들은 묻지 않는다', 시와사람, 2023)

[시의 눈]

새벽 남광주역에 가보셨나요. 아, 펄펄펄 거기는 내 삶조차 됩니다. 오메, 사람의 정이 등거리로 딱 붙어 띠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 점점 비닐에 이것저것 사담지요. 여긴 수산물, 야채, 과일 등이 집하되는 곳입니다. 새벽기차에 실려온 영남·해남의 고구마와 야채, 어수·별고의 산낙지와 꼬막과 감태, 그리고 완도산 미역과 전북 등 갖별 식품은 말 할 것도 없고 말리 지리산 삼마니들의 약초도 있습니다. 한쪽엔 사람들을 맞으러 시장속으로 뜨끈 국밥이 뭉개김을 쏘아댑니다. 끓는 가마솥은 '어서옵쇼' 주인이라도 되는 양 손님들을 불러들이지요. 그래, 사람들은 스스로 '내장, 순대, 살코기'가 됩니다. 그러다 내친김에 밥을 얻어 말아버리듯 '섞어국밥'이 되네요. 좌판 들러도 이리 쉼이건 추워서만은 아니예요. 허, 들꽃밭에 펄펄 날 듯 이런 봄의 세상도 있구나 싶어서 모으려다 봐요. 김귀례 시인은 광주에서 나 국어교사를 지냈고 2019년 시집 '꽃불'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21년 '시와사람'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거움 시대를 지나온 변방의 아픔과 근원적 슬픔에 풍자의 온기를 김처럼 쏘아는 시인이지요.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